

## 2) 수선사의 사회·경제적 기반

정혜사를 수선사로 중창하는 데 최우가 깊게 관여하였지만, 최씨정권이 수선사와 친밀하게 된 것은 지눌이 입적한 이후 혜심(慧諶)대에 이르러서였다는 주장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물론 수선사가 혜심대에 이르러서 최씨정권과 더욱 밀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지눌 당시에 불교계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면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전해지는 수선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수선사중창기」인데, 그것의 찬자는 최선(崔詵)이고 글씨를 쓴 자는 최우이다.

최우는 물론 국왕을 능가하는 실권자였다. 최선은 최유청(崔惟淸)의 아들이고 그의 가문이 무신란을 통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신집권 전반기의 비중 있는 학자 관료였고, 이규보·이인로 등 당대 최고 수준의 신진문인들의 좌주(座主)이기도 했다.<sup>1)</sup> 그런가 하면 수선사의 상량문과 기문(記文)은 왕명에 따라 작성되었다. 지눌이 입적하기 2년 전에 이와 같이 국왕을 위시하여 최씨정권의 집정자나 당대를 대표하는 문사(文士)가 수선사의 중창과 그 기문작성에 관여하고 있었다.

수선사는 지눌의 문도인 수우와 광조(廓照), 천진(天真) 등이 1197년부터 1205년까지 9년 만에 준공하였는데, 사옥(舍屋) 80여 칸과 불우(佛宇)·승료(僧寮)·재당(齋堂) 및 주고(廚庫)가 차례로 건립되어 그 찬란함이 뛰어났다.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해 초기까지 120일간의 준공법회가 열렸으며, 지눌이 입적하기 5년 전에는 이미 국가의 명령으로 개당(開堂)법회가 열렸다.

수선사 중창의 후원자로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사람들이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1207년 이 비를 세우기 이전에 입적한 도려좌화자(道侶坐化者)로 몽선(夢船), 단심(端諶), 용암사(涌岩寺)의 인민(仁敏), 염불산(念佛山) 갑사(岬寺)의 정성(正誠), 불암사(佛庵寺)의 해공(解空), 미흘사(彌屹寺)의 가휴(可休), 거조사(居祖寺)의 득재(得才), 수선사의 각순(覺純), 부유현의 안일호장(安逸戶長)인 작수(爵修) 등이 있다.

승속후원자(僧俗後援者)로 백암사(白岩寺) 성부(性富)와 금성(錦城)의 안일호장 진직승(陳直升)을 들 수 있다. 성부는 재장(榨匠)으로 발심(發心)하여 염불(念佛)에 종사하였는데, 수선사는 모두 그의 설계와 기술로 건축되었다. 진직승은 그의 처와 함께 금주(禁酒)·단훈(斷葷)의 계율을 지키고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수지(守持)하면서 백금 10근을 비용으로 시주하였다.

그밖의 남방(南方) 주부인(州府人)으로서 부자는 시재(施財)하여 경제적으로 후원하였고, 빈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힘썼다.<sup>2)</sup>

수선사 중창에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금성과 부유현의 안일호장이 관여한 사실이다. 부유현은 당시에 수선사가 있던 곳으로 지금의 나주인 금성의 속현이었다. 호장은 그 지역의 우두머리 향리로서 토호였다. 말하자면 가장 영향력 있는 재지주세력이 수선사의 중창에 깊이 관여한 것이다. 안일호장은 호장 중의 원로로서 이들의 경제력과 지방에서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였다.<sup>3)</sup> 진직승은 백금 10근을 시주할 정도의 경제력을 지녔는데, 그의 처인 진의금(珍衣金)은 남편과 함께 후에 지눌이 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를 펴낼 때 간행 비용을 부담하였다.<sup>4)</sup>

1) 허홍식, 위의 논문, 290~294쪽.

2) 최선, 「曹溪山 修禪社重創記」, 『朝鮮寺刹史料』上, 1912, 275~276쪽.

3) 허홍식, 앞의 논문, 299쪽.

고려 문벌귀족체제와 결합된 불교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앙결사였던 수선사는, 문벌귀족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서서히 성장해온 지방사회의 향리층은 물론, 이들과 이해가 일치하는 지방의 신흥독서층의 지지를 받았다.<sup>5)</sup> 우선 지눌이나 혜심이 독서층 출신일 수 있으며,<sup>6)</sup> 특히 혜심은 최홍윤(崔洪胤)·이규보(李奎報) 등과 깊이 교류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수선사가 결성되기까지 지눌은 용암사나 염불갑사·불암사·거조사 등 주변 지방에 산재한 사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한 수선사가 표방한 불교의 새로운 경향은 널리 지방에 소재한 사찰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음 기록은 이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기축년 6월 15일에 번개가 내려치고 대석(大石)이 붕괴되었다. 이날에 대사(정인)가 병이 들었다. 7월 2일 아침에 일어나 깨끗하게 목욕하고는, 문인(門人) 현원(玄原)을 불러 편지 세 통을 가지고 국왕 및 상국(相國)인 진양공(晉陽公)과 고승(高僧)인 송광사주에게 전하여 영원히 떠나감을 알리게 했다.<sup>7)</sup>

1229년(고종 16) 왕사 정인대선사(定印大禪師)가 임종할 때 문인 현원을 시켜 국왕과 최이(崔怡: 최우)와 송광사주에게 편지를 보내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1229년이면 지눌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긴 하지만, 당시의 국왕 및 최고 실력자인 최우와 같은 수준으로 언급된 송광사주는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수선사가 불교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역시 혜심이 제2세 사주가 되면서지만, 그러한 전통은 지눌 당시에 수선사가 불교계에서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졌던 데서 찾아진다.<sup>8)</sup> 최씨집권 중 특히 최우는 수선사와 밀착되었으며, 당시의 사주는 진감국사인 혜심이었다. 혜심은 최우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작성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1221~1223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선사단월급유지비(修禪社檀越及維持費)」는 수선사의 당시 재정규모를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전(本傳)으로 각종 보(寶)에서 받아들이는 조(租)가 4,700 석에 이른다. 그의 최우가 수선사에 축성유향보(祝聖油香寶)와 국대부인송씨기일보(國大夫人宋氏忌日寶)·동생매씨기일보(同生妹氏忌日寶)를 만들고, 각종의 토지를 시납(施納)하였다. 축성유향보는 왕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지만, 국대부인송씨기일보와 동생매씨기일보는 최우의 어머니인 국대부인 송씨와 동생의 기일을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승평군의 여러 촌이나 이웃 군현에 속한 전답을 거기에 시주하였다. 그런가 하면 최우의 측근인 노인수(盧仁綬)·김중구(金仲龜)·서돈경(徐敦敬) 등도 각종 보의 이름으로 수선사 이웃 군현의 전답과 염전 등을 시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납한 노비가 13구였으며, 뒤에 삭발하여 범명을 현해(玄海)라고 한 신준교(申俊教)가 노비 4구를 시납하였다.

또한 「상주보기(常住寶記)」는 1224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9)</sup> 혜심이 최우에게 보의 설치에 관한 보고를 올리고 그것에 대한 왕의 윤허를 얻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곧 혜심은 왕

4) 金知見 編, 『華嚴論節要』, 寶蓮閣, 1978, 459쪽.

5) 채상식, 「수선결사 성립의 사회적 기반」, 『고려후기불교사연구』, 一潮閣, 1991, 40쪽.

6) 지눌의 아버지 鄭光遇는 京西 洞州人이었고 國學 學正을 지냈으며, 또한 혜심은 사마시에 급제한 경력을 가졌다.

7) 이규보, 「故華藏寺住持 王師定印大禪師 追封 靜覺國師碑」, 『동국이상국집』 권35에 “己丑六月十五日 震雷作 大石崩落 是日 師視微疾 七月二日 晨起盥洗 召門人玄原 裁書三道 囑國王及今相國晉陽公 高僧松廣社主 告以長邁”라 하였다.

8) 진성규, 앞의 논문, 27~28쪽.

9) 韓基汶, 「高麗時代 寺院寶의 設置와 運營」, 『歷史教育論集』 13·14合, 1990, 375~376쪽.

명에 따라 전라도안찰사 전보구(田甫龜)에게 관내의 황폐해진 소사찰(小寺刹)들을 조사하게 하고, 이들 사찰에 상주보의 곡식을 나눠주고 그 이자로 계속 사찰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여기에서 지정된 11개의 사찰은 당시 수선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sup>10)</sup>

수선사는 최충헌 집권 말기부터 시작하여 최우 집권기에 이르면, 최씨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대사원으로 변모하였다. 최우는 1245년에 원찰(願刹)인 선원사(禪源社)를 세웠는데, 그것은 수선사의 분사(分社)나 출장소와 같은 것이었다.<sup>11)</sup> 그런가 하면 최우는 그의 두 아들인 만종(萬宗)과 만전(萬全)을 수선사로 보내 혜심의 제자로 삼게 하였으며 이들은 쌍봉사(雙峯寺)와 단속사(斷俗寺)에 머물렀다. 뒤에 만전은 환속하여 최우를 잇는 무인집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최항(崔沆)이었다.<sup>12)</sup>

혜심도 이러한 최우의 귀의에 대해 그를 위해 축수재(祝壽齋)를 주재하는가 하면, 그가 이끄는 무신정권의 시정(施政)을 찬양하였다. 혜심 이후에도 무신정권과의 친밀한 분위기는 계속 유지되어, 제4·5세인 혼원(混元)과 천영(天英)이 주석하면서 수선사의 사원 세력규모는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최씨정권이 몰락한 1258년 이후 일연 계통의 가지산문(迦智山門)이 부각됨으로써 수선사의 황금시대는 서서히 퇴조했다.

---

10) 채상식, 「수선결사 성립의 사회적 기반」,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47쪽.

11) 金映遂, 「五教兩宗에 就하여」, 『震檀學報』8, 1937, 99쪽.

12) 『고려사』 권129, 崔忠獻傳附 崔沆傳.